

광주 광공업 생산·건설 부진... 소비는 반등

ECONOMY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설 연휴 등 여파에 자동차·기계장비 등 감소

건설수주 전년동월비 91.4%↓...전남은 회복

올해 1월 광주·전남지역 산업지표를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는 광공업 생산·출하 부문이 1년 전과 비교해 하락한 반면, 전남은 모두 올랐다. 또 소비지표는 양 지역 모두 증가했지만, 건설수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 전기장비(16.0%), 담배(24.3%), 금속가공(8.4%) 등은 증가했지만,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24.3%), 고무 및 플라스틱(-19.6%), 기계장비(-9.3%) 등에서

감소했다. 출하도 1년 전 대비 11.4% 줄었는데 역시 자동차(-22.1%) 감소의 영향이 컸다. 이 외에 고무 및 플라스틱(-16.9%), 1차금속(-26.5%)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금속가공(205.9%), 자동차(6.6%), 전기장비(21.5%) 등은 늘었지만 전자·통신(-84.1%), 기계장비(-27.4%), 고무 및 플라스틱(-21.6%) 등이 줄었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9.3%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백화점 판매는 5.8%, 대형마트 판매는 11.9% 각 늘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오락·취미·경기용품(154.9%), 기타상품(19.3%), 음식료품(16.2%) 등은 증가했고, 신발·기방(-15.5%) 가전제품(-1.4%) 등은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46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4%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82.8%, 민간부문은 부동산, 금융·서비스 등의 감소로 93.2%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2.8% 증가했다. 전기·가스업(44.1%), 기타운송장비(65.2%), 식료품(8.8%) 등이 지역 광공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출하는 1년 전 대비 4.5% 늘었는데, 기타운송장비(67.5%), 전기·가스업(46.3%), 화학제품(4.6%) 등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재고는 화학제품(14.7%), 석유제품(14.1%), 1차금속(6.2%) 등에서 증가하고 금속가공(-21.7%), 자동차(-62.2%), 음료(-0.2%) 등이 감소하면서 1

년 전 대비 10.6% 증가했다. 지난 1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7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했다. 오락·취미·경기용품(55.8%), 음식료품(18.3%), 화장품(10.1%) 등은 증가한 반면, 의복(-10.1%), 신발·기방(-2.5%), 가전제품(-1.8%) 등은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132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4.7% 줄었는데 공공부문은 공기업, 중앙정부 등의 감소로 42.2%, 민간부문은 건설업, 기계·장치 등의 감소로 74.5% 각 줄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한전, 신입사원 700명 채용...전년비 20% ↑

체험형 인턴 900명 선발도

한국전력은 오는 11일부터 2025년도 상반기 대졸수준 공채(310명) 지원서 접수 시작을 시작으로 연간 700명 규모의 신규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22년 이후 한전의 최대 채용 규모다. 한전은 정규직 일자리 외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자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900명 규모 체험형 인턴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도 희망 퇴직과 인력 재배치 등 고강도 자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번에 채용되는 신입사원은 기술분야 인력을 약 80% 수준으로 채용하고, 입사 이후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분산에너지특별법 이행 등 핵심사업 분야에 집중 배치해 전력사업 혁신을 이끌어갈 원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능력 기반 고졸인재 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고졸 인재 87명(고졸 제한채용+체험형 인턴)을 채용한다. 이는 전년도 고졸 채용 인원의 2.1배에 해당한다. 한전 상반기 대졸수준 공채 입사지원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전 채용홈페이지(recruit.kepco.co.kr)에서 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역량면접→4차 종합면접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 3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돌입

지역 6곳 매장 운영...신용등급 하락 선제 대응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1시간 만이다. 홈플러스는 아마도 다음으로 많은 전국 12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광주에는 하남점과 동광점 2곳이 운영 중이며, 전남에는 4곳(광양점, 순천점, 순천풍덕점, 목포점)이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으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법원은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기존 대표와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한다.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송대용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광주국세청·세관, 납세자의 날 표창장 전수

탑선 은탑훈장·아이드림 산업포장 등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중)은 제 59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정부 포상 수상자는 주식회사 탑선(은탑훈장), 주식회사 아이드림(산업포장), 보해양주주식회사 문상오 차장·지리산한지 유한회사(각 대통령 표창), 삼원기업 주식회사·학림건설 주

식회사(각 국무총리 표창)이며, 기획재정부장관 14명, 국세청장 16명, 광주지방국세청장 18명, 세무서장 23명 등 모범납세자 77명과 세정협조자 15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광주국세청은 세무서별로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을 위촉하고,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소통행사를 펼쳤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청소년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6월 30일까지 개최하고, 도서·벽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광중 청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납세자를 폭넓게 세정지원하고, 공제감면·기업승계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도 이날 기념행사를 열어 롯데캐피탈(리더 홍의식), 금호타이어(책임 김경훈)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GICON, 시민자문위원회 모집

19일까지 24명 선정...현안 파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제2기 시민자문위원회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제2기 시민자문위원회는 정책·콘텐츠·디지털 분과로 운영된다. 서류평가를 통해 총 24명을 선정, 분과를 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올 한해 기관 행사 및 자료회의 참석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시민자문위원회는 지역 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난해 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시민자문위원회를 운영, GICON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선 8기 시정방향을 맞춰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기자재 박람회 수출 지원

농어촌공사, 한국관 5곳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케이(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2일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해외 농업박람회 5곳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국내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개 기업과 함께 농기계,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비료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 결과, 974건 1억12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기업 28곳과 함께 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어촌공사는 참가객이 1만5000명 이상 참가객이 방문하는 '2025년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Agritechnica asia 2025)'와 2000여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농업박람회인 '2025년 중국 국제농화학·작물보호 박람회(CAC 2025)'에 참가한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독일 농기계 박람회 △튀르키예 농업박람회 한국관을 조성해 세계 시장에서 케이(K)-농기자재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한국관 조성도 더불어,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부스별 전문 통역사, 바이어 매칭, 국가별 최신 시장 분석과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찬희 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농업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HD현대삼호는 최근 영암의 한 사외주차장에서 김재를 현대삼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HD현대삼호, 친환경 에너지 효율 강화 '박차'

사외주차장 1.8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HD현대삼호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현대삼호에 따르면 최근 영암의 한 사외주차장에서 김재를 현대삼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는 8600㎡ 부지에 1.8MW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기요금 절감 및 탄소배출권 매입량 감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현대삼호는 최근 업계 최초 오피스 100% 재이용 고도처리시설 구축,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에너지 관제센터 설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디지털 인버터 용접 시스템 적용 등 친환경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소진공, 지역 특성 연계 예비창업자 양성

목포대 등 14곳과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협약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예비창업자를 양성하는 전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전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14개 지역대학과 '2025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14개 지역대학 교수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모두 14곳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역에서는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을 갖춘 대학이 협력해 지역기반 예비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7개 대학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이듬해 12개 대학, 올해 14개 대학으로 확

대되며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 대학들은 로컬 창업 관련 전공(응·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에 맞춰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또 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창업 동아리 등 실습·체험형 비교과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로컬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진공은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의 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합세미나 및 성과공유대회를 개최,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중진공-광주TP, '광주드림패스' 성공 힘모은다

인재양성·청년창업 활성화 등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인재 양성 등 동반성장을 이룩하고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4일 중진공 호남연수원에서 광주테크노파크(광주RISE센터)와 동반성장을 위한 '광주드림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우주 중진공 광주본부장, 전경훈 중진공 호남연수원장, 김영민 중진공 광주RISE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착, 청년창업 활성화 등이다. 교육부와 중기부 사업을 연계해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광주TP(광주RISE센터)는 광주형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참여 대학 공모시 인재스킬업(SKILL UP), 기업밸류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대학이노엄(INNO UP), 범부처·초광역 브릿지업(BRIDGE UP) 등 '5U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단위과제에 중진공 지원사업을 연계, 신청 대학에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관점의 대학별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지역대학과 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

김영민 광주TP 원장은 "성공적인 RISE 사업 체계 안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역량을 결집하고 연계·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기업과 지역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우주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 취·창업자들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성공 경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서 지난달 25일 지역대학의 RISE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당시 조사한 협업 희망 분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다음 달부터 '광주드림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